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농어촌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19일(월)에 특강과 간담회, 나눔의 장 개설

전도위원회에서는 19일(월)에 민족복음화를 위해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통해 우리교회와 결연한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진행할 이번 세미나에서 오전에는 예배와 이종윤 목사의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를 생각해 볼 것이며, 식사 후에는 나눔의 장에서 재활용품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 프로그램은 농촌 목회자로부터 현지 목회현황을 듣고, 도시교회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정해술 목사(정립중앙교회)와 이상중 목사

(원평중앙교회)가 하며, 응답은 총회 농어촌부 간사인 민정웅 목사(독마위교회)가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도시교회와의 효과적인 상호협력방안을 수립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민족복음화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교회에서는 6개월간 진행해 온 <100교회 운동>의 중간 점검과 '95년도 하기 전도대 파송 등 실제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개정공포

- 여자 목사·장로 세울 수 있어 -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지난 5월 27일자로 개정된 헌법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오는 9월 21일 제 80회 총회 개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붙여 발표했다.

공고된 개정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에서 남녀를 공히 허락하기로 하고 임시 목사의 시무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여성도도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장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전국 51개 노회의 수의를 거친 후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포된 것이다. 개정안은 2개 노회(군산노회, 전남노회)를 제외한 49개 노회의 찬성을 얻었으며 전체 득표도 2/3을 훨씬 상회하는 수로 통과되었다.

학습·세례식

21일(수) I, II부 예배 시

1995년도 제 3차 학습·세례식을 21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9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김치(KIMCHI)명칭

- 특허청에 등록 -

우리교회 부설 기관인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일명 『김치(KIMCHI)』가 지난 5월 특허청에 등록되어 고유의 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김치신학세미나의 『김치』라는 명칭은 '국제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95 홍해작전

행진 13일째

- 다음 주일 승전감사에배 -

해마다 시행되어 고정적인 행사가 된 홍해작전은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로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개인의 기도생활을 훈련하는 기도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오늘은 홍해작전 행진 13일째를 맞았고, 6.25사변 45주년 기념일인 다음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20일간의 행진을 마치면서 승

전감사에배를 드린다.

'95홍해작전기간동안 함께 기도한 일곱가지 기도제목과 각자의 기도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승전보고를 하는 이날 찬양예배에는 장신대 중창단이 특별 순서를 갖는다.



홍해작전은 합심기도와 중보기도 등으로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기도를 훈련하는 기회가 된다. 새벽마다 모이는 서로의 열심에 격려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사진은 '95홍해작전의 행진이 중반에 이른 지난 15일(목)의 새벽기도회



창세기 강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22장 13 ~ 14절)

이종운 목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내고 결국은 신부감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길이가 긴 장(章)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상면한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성립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변제로 드렸던 자로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이삭이 신부를 택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를 택하심이 어떠한가에 대한 교훈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믿음으로 행함

이삭의 결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종과의 관계, 종과 리브가와와의 관계,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 등 많은 인간관계에도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는 종을 인간적으로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종도 출발과 일의 진행 과정과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그 원인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의 종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 기도로 지혜를 얻음

이들의 결혼은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머물러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뛰어올라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고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은 하나님께서 행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에는 주인의 요청을 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이를 만나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것으로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귀한 것입니다. 더욱이 약대 열마리에게까지 물을 먹이려면 건강과 인내와 후한 마음과 관용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과 책임감과 부지런함,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는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종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지혜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약 1:5)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와 순종으로 일을 이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종의 기도가 마치 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종과 리브가의 사이에 오간 대화는 길지도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일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선한 소원은 생각까지도 알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엡3:20)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의 순종을 본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과 오빠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24:50)고 말합니다. 열흘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가족의 말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며 지체하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일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께 창세 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엡1:4).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이끌어 오는 종의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킬림 ◆

어려운 일 몇가지

위급한 때에 여유를 갖기란 어렵다. 평상시라면 그 정도의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도 막상 위급한 일을 당하면 이성을 잃고 당황하게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침착하게 기도를 할 줄 아는 여유와 신앙이 있어야 한다.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기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 충고가 필요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 존재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충고는 쓴 약과 같아 받을 때엔 괴롭고 역겨운 것이지만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크게 복이 될 것이다.

어제의 선이 오늘의 선으로 연결되기가 또한 어렵다. 기왕에 쌓은 공적이 어제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승리가 되도록 기도하자.

▶ 자매교회를 다녀와서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김성규(청년부 회장)

하늘은 높고 햇볕은 뜨거운 날. 우리 청년부와 자매결연한 충남 괴산의 사곡교회를 방문하였다. 그간 매달 청년회 회비 중 일부를 보내고 기도만 해 왔는데 교회를 직접 보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청주행 고속버스, 증평으로 가는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를 한 번 더 타고서야 오래도록 빈 집과 두엄의 향기, 누런 소의 하품이 있는 한적한 사곡마을에 도달할 수 있었다. 20여 세대가 산다는 사곡마을에서 인적은 찾기 힘들었지만 길가에서 있는 사곡교회는 쉽게 눈에 담을 수 있었다. 20평 남짓한 본당과 그 옆에 위치한 사택, 목장, 밭들... 정문 꼭대기에는 종탑이 있어 땅거미가 질 때면은 동리로 퍼져나갈 종소리가 들리

는 듯했다. 우리를 보자 낡은 고무신을 신으신 오유성 전도사님 얼굴에 반가운 빛이 환하게 번졌다.

홍부, 놀부의 후손인지 주민의 대부분이 ‘연씨 성을 가졌다’는데 씨족마을이라 자기들끼리의 단결은 잘하지만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거부감이 강해서 전도하기에는 무척 힘들다셨다. 주일 낮예배에 출석 인원은 10명 정도. 그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뿐이고 설교는 전도사님이, 기도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반주는 전도사님의 따님이 하고 계신 형편 이란다.

참의를 깎아 주시는 사모님 손은 참 투박하기만 했다. 손이 거칠어 스타킹을 신을 때 장갑을 껴야만 한다던 어느 정치가 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사모님은 어떻게 스타킹을 신으실까?

우리가 보내는 작은 물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를 표시하는 전도사님의 말씀 무안함으로 입안에 가득하던 참의의 단맛이 다 달아나 버렸다.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려 하는 사모님을 가로막으시며 전도사님께서는 단지 마을 주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다.

우리 청년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여려가

지 질문을 하였고, 요즈음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세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기회가 되면 우리교회가 주최하는 목회자세미나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도 해주셨다.

청년부에서는 요즈음 한국기독교사를 공부하고 있다. 이만열 전도사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고, 청년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에 바르게 기억될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시는 이 전도사님의 도전에 피가 뜨거워져 주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각오하는 체험을 매주일하고 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던 이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예견했었을까? 사실 사곡교회,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교회를 볼 때에 사실 착잡함을 지울 수 없으리만큼 열악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사의 처음의 미약함과 창대해진 오늘을 생각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에게처럼 사곡교회나 이슬람권에도 이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게 된다. 우리의 기도의 후원이 복음의 불모지가 옥토되는 데에 밀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95 홍해작전 행진일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권영옥(권사)

“내게는 잔이 넘치나이다”

홍해작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올해의 홍해작전도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면서, 아침에 도우신다는 약속을 따라 바다를 먼지를 일으키며 건너듯 날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픈 소원을 가득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향한 열심을 더 내어 충성하리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소생케할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선권을 바로 설정하기를 원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당 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모퉁이들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되 몸되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은 행진.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개신가를 부를 수 있도록 때를 놓치지 말고 새벽을 깨웁시다.

“늦게 와도 한 달란트?”

장덕(새가족, 지난 2월 등록)

우리 가족은 지난 2월, 강남대로에 사업장을 열게 되면서 목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려가지로 보이셨고, 앞일을 알지 못하고 떠나오는 우리 가족을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감싸주셨다. 심지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이루시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매순간 감사했다.

우리의 서울 생활은 교회를 찾는 일부부터 시작되었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들른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한번 감사를 드렸다. 바라고 찾던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새벽기도를 굳게 작정했지만 복잡한 서울생활에서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빠지게 되었고, 감격과 감사도 줄어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변화하는 생활이 점차 퇴보해 가고 있었다.

홍해작전의 행진이 시작된 지 7일이 지나서야 잠자던 영혼이 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늦게나마 행진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아침 일찍은 자에게나 오후 늦게 온 자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천국비밀. 처음으로 참석해 본 홍해작전을 통해 말씀이 새록 새록 내 마음에 파고 들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응답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라도 와서 선한 포도원 주인께서 배부시는 은혜를 많은 형제들이 누리며, 내게 임한 것과같은 감격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순례 길에 만난 사람
오는 26일에 독주회 여는 한현숙 집사님

“하나님께 향한 예배만이 제 음악을 의미있게 합니다.”



임 마누엘 찬양대 피아니스트인 한현숙 집사님이 오는 26일(월)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바로크 초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음악을 고루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바로크 음악은 작곡 당시의 악기인 하프시코드로 연주하게 됩니다”라고 이번 독주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는 한 집사님은 클래식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친근히 접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독주회도 관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다고 한다.

부군 광종철 집사님과의 사이에 결혼한 지 6년만에 얻은 귀여운 딸, 지승이의 출생은 한 집사님께서 우리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유학 시절, 그곳에 초청되어 오신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구하던 한 집사님 부부의 오랜 기도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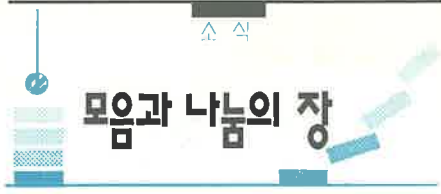
1991년 11월에 귀국하셨으니 우리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호산나 찬양대의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게 되었고, 현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피아니스트로 봉사하고 계시다.

말을 배우기 전,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먼저 하셨다는 한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왔고, 현재도 연주활동과 후진 양성으로 끊임없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연관되어 예배를 통해 바쳐지지 않을 때에 내 음악은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되고 만다” 시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만큼 모든 찬양대원들은 자기 소리를 높이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녹아져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데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 한현숙 피아노 & 하프시코드 독주회 ■

6월 26일(월)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 공연문의 ☎ 236 - 6186(연주회장), 459 - 1403(자택)

때에 응답된 것이다. 따라서 한 집사님 가정에 그 집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고 귀국하자마자 수소문하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곳을 찾아 우리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의류들을 모아 나누는 『모임과 나눔의 장』이 농어촌에서 목회자들이 오는 19일(월)에도 열린다. 이날은 12시 30분에 개장할 예정이므로 재활용품의 『모임』은 12시로 마감한다. 정리와 손질, 분류와 진열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일의 장은 농어촌 교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며, 성도들끼리의 나눔은 차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류 외에 생활용품, 신변보호, 도서 등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도 깨끗하게 손질하여 모으고, 나누자.

6월 새가족 환영회

25일(다음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6월에 등록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 좌석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광야의 소리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

이번에 치루어질 지방자치선거는 91년 지방의원선거를 통해 부분적인 자치만이 실시되던 상황에서 행정책임자인 단체장까지 뽑는, 건국 이래의 최대규모의 선거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지방화시대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유권자들의 개입 외에 단체장은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제의 전부는 아니며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힘으로 자기 지역과 생활을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일꾼을 선택하고 기권없이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 네가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도 많은데다가 쏟아지는 홍보물, 비슷비슷한 현수막으로는 적합한 인물이고

르기에 힘들므로 이번 주에는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보고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교회와 정치는 각각 별개의 영역자주권을 가지지만 성도들 개개인은 현실에 대해 깨어서 정치에 참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회를 개선시켜나가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잊지말자. 그것은 천국시민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다(딤후2:1).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농어촌 교회의 자립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2. 홍해작전을 마치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바른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